

=====

2015년 11월 01일 수요일

=====

죄는 회개로만 해결된다

=====

[로마서 9장 7-8절]

7(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8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7 Nor because they are his descendants
are they all Abraham's children. On the
contrary, "It is through Isaac that your
offspring will be reckoned."
8 In other words, it is not the natural
children who are God's children, but it is
the children of the promise who are
regarded as Abraham's offspring.

[로마서 9장 29절]

29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고
함과 같으니라
29 It is just as Isaiah said previously:
'Unless the Lord Almighty had left us
descendants, we would have become like
Sodom, we would have been like
Gomorrah.'

=====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을 빕니다.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 이번 주에는
<성찬 예식>이 있었습니다.

<휴거된 이후 처음으로 맞는
성찬식>이었는데요, 각자 준비한 만큼
은혜와 감동과 성령을 받고 새롭게
결심하며 도약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 <이 시대 성찬식>은 '슬픔의 날'이
아닙니다. '영광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사 신부들과
온 인류를 살리시려고, 성령과 함께
'생명의 씨를 뿌린 날'입니다.
<생명의 씨>가 누구입니까?
'시대 보낸 자'입니다.

<씨>가 땅에 뿌려지듯 <그>가 대신
짓값을 받아 조건을 세워 주고
<휴거의 황금별판>으로 만들어
우리가 휴거됐습니다.

섭리역사는 휴거를 맞았으니,
모이면 항상 '혼인 잔치'입니다.

◎ 성찬식 때 '씨'에 대해 핵심을
말씀해 줬지요? 오늘은 그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말씀이 짧으니, 귀를 기울여 잘 듣고
뇌에 새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삼위와 주와 <기쁨의 혼인 잔치>를
하기 바랍니다. 말씀의 주제는
'<씨>로 황금별판을 만든다.'입니다.

◎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시작>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잠이 들어서
매우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누가 나에게 공을 던졌는데, 정확하게
급소에 맞았습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깨 보니, 기도할 시간이었습니다.
삼위일체는 정말 신비하게
계시하십니다.

씻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고 좋아하며
살면 좋겠어요. 나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도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살게 하기가
힘듭니다."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다 '씨'가 될 수 없느니라."

<잠시 쉬었다가>

<씨>가 무섭습니다. 왜요? <씨 하나>로
'엄청난 역사'를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벼농사를 짓고 나면, 알곡 중에서
'좋은 법씨'를 먼저 골라냅니다. 만일
'만석의 벼 알곡'이 나왔다면, 그중에서
'법씨로 쓸 것 한 가마니'를 남깁니다.

<만석의 벼 알곡>은 음식을 해서 먹고
끝내고, <골라낸 한 가마니의 법씨>를
다시 뿌려서 벼농사를 지어
황금별판을 만듭니다. <좋은 법씨>가
그 해 논농사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씨'가 무섭습니다.

과일 농사도 '열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씨'로 합니다. <씨 하나>로
과일 농사를 지어 과일을 거두게
됩니다. <씨>는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를 만듭니다.

<씨가 아닌 것>은
'하나의 밥알'로 끝나고,
'하나의 과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씨'를 가지고 역사를 펴십니다.
그래야 온 세상을 '하나님의 황금별판
역사'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두 다 '씨'가 될 수 없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었으면 곡식을 먹고
팔아야지, 모든 알곡들을 다 '씨'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지구상의 모든 인생들이
다 '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씨로 쓸 것>은 따로 뽑고 골라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 역사에
뿌릴 씨 하나>를 뽑아서 그를
가르치시고 인생들을 구원하라고
세상에 내보내십니다.

그는 <씨>로서
'일반 곡식처럼 먹고 끝내는 사명'이
아닙니다. 땅에 떨어져 희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구원자로서 조건을 세우며 성삼위와
함께 <새 역사>를 펴 나가며
황금별판을 만듭니다.

예수님은 '신약 아들의 씨'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여 뽑아서 보낸
'씨'였습니다. 고로 그 '한 사람'을
통해 <신약 황금별판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예정하여
기르고 연단시킨 후에 이 시대에
'성약 신부의 씨'를 보내셨습니다.

구시대와 세상이
'그'를 욕하고 악평하고 핍박하며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막았지만,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그 씨'를
세상에 뿌려 그가 모든 짓값을 대신
받고 조건을 세워 <새 시대 황금별판>
<휴거의 황금별판>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 곧 '씨 하나'를 통해
<성약 황금별판 역사>가 펼쳐지고,
<휴거 황금별판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자>는
'씨'입니다. <그를 통해 펼쳐지는
하나님의 새 역사>도 '씨'입니다.
그 '씨'를 통해서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여 황금별판으로 만들고,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황금별판으로 만듭니다.

<씨 하나>가 온 세상을
황금별판으로 물들입니다.

〈곡식과 과일〉은 모두 먹고 끝납니다.
그러나 〈씨〉는 먹고 끝나는 곡식이나
과일이 아닙니다. 땅에 떨어져 싹을
틔워 번창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자,
씨와 같은 자〉를 믿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새 역사〉로 온
〈새 시대 생명들〉도 ‘씨’입니다.
이들을 통해 200배, 300배, 1000배,
10000배, 10만 배, 번창해 나갑니다.

〈씨 하나〉로
100배, 1000배, 10000배,
10만 배... 계속해서 번창해 나갑니다.
오직 ‘씨’만 황금별판을 만듭니다.
나머지는 먹고 끝납니다. 고로
‘씨 인생’은 육적으로 먹고 즐기며
끝나는 인생을 살지 않고, 씨가 땅에
떨어져 싹을 틔우고 황금별판으로
만들 듯, 〈자기 영혼〉을 구원하고
휴거시키고, 〈생명들〉을 구원하고
휴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구시대〉와 〈구시대인들〉은
‘씨’가 아닙니다.
〈새 시대〉와 〈새 시대인들〉이
‘씨’입니다.

하나님이 ‘씨’로 삼으셔야
‘황금별판 역사’를 이룹니다. 고로
〈새 시대 사람들〉이 ‘새로운 육토’에
떨어져 수천 배, 수만 배 번창하게
되어 〈새 시대 황금별판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시대〉는 구시대 나뭇대로
존재하게 하시고, 〈새 역사의 씨들〉은
〈새 시대〉에서 뽑아서 그들을 통해서
〈새 시대 황금별판 역사〉를
이루십니다.

〈씨〉는 처음에는 ‘미약’합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창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씨’입니다.
아브라함도 〈후손의 씨〉를 ‘이삭’으로
정하고, 가다 보니 그 족속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37년 전에
〈시대 보낸 자, 하나의 씨〉를
세상에 뿌리셨고, 그 ‘씨 하나’가
수만 배로 번져 나가는

〈새 시대 휴거의 황금별판〉을
이루었습니다. 〈씨 하나〉가 수천,
수만 배 번창하여 온 세상을
황금별판으로 만듭니다.

〈시대 보낸 자〉는 ‘씨’입니다.
〈새 역사〉는 ‘씨’입니다.
〈새 역사의 새 생명들〉은 ‘씨’입니다.
고로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씨〉이니, 온 세상을 뒤덮습니다.

나머지 종교와 나머지 인생들은
‘먹고 끝나는 곡식’과 같습니다.

오직 〈씨〉만이 번창해 나가니,
하나님은 ‘하나의 씨’로 지구상 모든
인생들을 대신하여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씨’만 찾는다.” 하셨습니다.

결국 ‘씨 하나’로 역사를 펴니다.

그래서 〈새 역사〉는 기필코 승리하고
〈시대 보낸 자〉도 기필코 승리합니다!

〈십일조〉와 〈감사〉는
‘자기 경제의 씨 역할’을 합니다.
고로 이 씨를 뿌려야 번창합니다.

〈새벽기도, 비상 기도, 117기도〉는
‘하루의 씨 역할’을 합니다. 고로
이 씨를 뿌려야 하루가 잘됩니다.

〈말씀을 외치는 것〉과 〈설교〉는
‘씨 역할’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생명들’이 구원받고 휴거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영적으로 보면, ‘육’이 〈씨〉입니다.

〈육〉이 ‘씨’가 되어
〈자기 영의 구원과 휴거〉를 위해
희생하면, 〈영의 싹〉이 새롭게 자라서
수천, 수만 배를 거두게 됩니다.
〈씨〉를 뿌리고 〈곡식〉으로 거두듯,
〈육의 씨〉로 뿌리고 〈영의 곡식〉으로
거둡니다. 곧 〈육〉으로 뿌리고
〈영〉으로 거둡니다. 곧 〈육〉으로 심고
〈영〉으로 살아납니다.

모두 〈육신의 씨〉를 가지고
‘영’을 위해 뿌리고 심어서 〈휴거〉로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번창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육신〉을 ‘씨’로 삼지 않고
그저 ‘먹고 끝나는 곡식’으로 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영〉을 위해 살지 않고
〈육〉만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씨〉는 수백 배, 수천 배를 남기지만,
〈먹고 끝나는 곡식〉은 음식을 해
먹으면 끝납니다.

이와 같이 〈육〉만 위해 사는 자들은
〈자기 육〉을 ‘먹고 끝나는 곡식’으로
삼아 육적으로만 즐기고 누리며
살다가 끝나니, 당세에 한때 빛나고,
살고 나면 ‘미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육〉만 위해 살아갑니다.
〈먹고 끝나는 곡식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을 보고 ‘부럽다!
저렇게 살고 싶다!’ 하렵니까?
그들은 〈자기 육신〉을 ‘씨’로 삼아
뿌리지 않았으니, 한 번 음식을 해
먹으면 끝나는 곡식과 같이 됩니다.

새 역사로 온 우리는 〈씨〉입니다.

그러나 섭리사에 왔어도
〈먹고 끝나는 곡식〉처럼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씨 인생’이라면
먹고 끝나지 않습니다. 〈육〉만 위해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기 육의 씨〉를 뿌려
‘영의 휴거’로 거두고,
〈자기 육의 씨〉를 뿌려
‘생명’으로 거둡니다!

〈씨 한 되〉로 ‘황금별판’을 만들고,
〈하늘 생명의 씨〉로 온 세계를
‘새 역사 황금별판’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곡식들이
다 ‘씨’가 될 수 없습니다. 〈씨〉는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만 됩니다.

〈씨〉는 땅에 심어 희생하지만,
그 ‘씨’로 인해 수천, 수만, 수십만
배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씨의 영광’입니다.

〈씨〉는
‘농사지은 전체 곡식의 수’보다
적지만, 그 ‘씨’로 인해 〈후대와
미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듭니다.
이것이 ‘씨의 가치’입니다.

섭리사에 왔다고 해서
다 ‘씨’가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씨’로 삼고 ‘영’을 위해 ‘생명’을 위해 심어야 <씨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똑같은 씨’로 삼지 않으십니다. 분야별 센터마다 뽑아서 ‘개성의 씨’로 삼으십니다.

사랑의 씨, 사명의 씨, 경제의 씨, 전도의 씨 등 수백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씨의 가치>를 알고 ‘자기가 무슨 씨’인지 알고, 각자 개성대로 ‘씨의 사명’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씨>는 관리를 잘하다가 ‘옥토’에 뿌려야 됩니다.

이와 같이 <씨>가 되어 ‘씨의 사명’을 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의 새 역사에 뿌려야 됩니다!

<씨 역사인 섭리역사>에 수많은 생명들이 왔다가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중에서 ‘씨로 남길 자’들은 꼭 택하여 그들을 통해서 다시 ‘생명의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의 섭리역사>를 ‘황금별판’으로 만드십니다!

<씨>는 ‘하나’지만 변창합니다. <씨가 아닌 것>은 수가 많지만 하나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씨’를 가지고 역사를 펴십니다.

곧 시대 보낸 자를 통해서, 새 역사에서, 새 역사의 생명들을 데리고 <황금별판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씨’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주인이 <씨>로 쓰려고 곡식을 보관했는데, 쥐나 새가 와서 ‘씨’를 손댔다 합시다. 주인은 ‘쥐약’을 놓고 ‘덧’을 놔서 반드시 잡습니다.

씨를 먹는 쥐나 새는 주인이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그렇게 하십니다.

<말씀 마무리>

◎ 말씀 서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씨>는 ‘씨발, 씨씨’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욕하고, 악평하고, 불평불만 하는 자는 ‘씨’가 아닙니다.

<씨>는 늘 웃어 대고 감사하고 고마워합니다.

◎ 잘 들어 봐요.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의 인도를 받고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신광야>로 가서 ‘광야 생활’이 고달프다고 씨씨 욕을 하고 악평을 하고 원망을 하며 구시렁댔습니다.

그들은 ‘불평불만 하고 악평하는 종자’로서 종자가 안 좋으니 하나님은 그들을 <씨>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신광야에서 먹고 끝나는 소모품 인생’으로 삼으시고, 씨발, 씨씨 하면서 살게 두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좋은 씨>만 골라서 ‘가나안 복지’에 뿌리셨습니다.

불평불만 하고, 악평하고, 욕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씨’로 삼으면, 그 씨를 뿌리고 농사를 다 지을 때까지 불평불만 소리, 악평 소리, 욕 소리, 원망 소리만 나오고, 크더라도 인상을 찌푸리면서 무섭게 크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씨’로 삼지 않으십니다.

그냥 ‘밥을 해 먹고 끝나는 곡식’으로 씨 버리십니다. 이는 한 번 쓰면 사라지는 ‘소모품 인생’입니다.

씩는 문화에나 빠져 있고, 하늘을 향해 불평불만을 하고, 악평을 하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빠져 즐기고, 각종 불의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자들은 절대 <씨>로 삼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씨>로 삼으면, 농사를 지어서 키울 때까지 불평불만이고, <그로 인해 거두는 것들>까지 그 종자가 되어 하나님의 속만 썩이기 때문입니다.

<씨>는 오직 감사, 오직 사랑입니다.

고로 하나님은

-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웃어 대며,
- 모든 자들의 본이 되며,
- 멋있고 빛나게 영광을 돌리며 성삼위를 사랑할 자들을
→ <씨>로 삼아 아껴 주시고, 그들을 뿌리고 심어 ‘황금별판’으로 만드십니다!

성삼위와 주의 말씀에 따라서 부지런히 열심히 하여 남기고, <자기 욕>을 ‘씨’로 삼아 ‘영을 휴거’시키고, <자기 욕>을 ‘씨’로 삼아 ‘생명을 구원’하고 부흥시키면, 그로 인해 ‘황금별판’을 만들게 됩니다.

자기를 ‘좋은 씨’로 만들기 바랍니다! 모두 ‘좋은 씨’가 되어 뿌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씨가 되지 못한 자>는 ‘하나의 곡식’이 되어 음식을 만들어 먹고, 떡도 만들어 먹고, 별미도 만들어 먹고, 각종 진수성찬이 되어 ‘육’으로 화려하게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래’ 없이 끝납니다.

<자기 욕의 인생>이 ‘씨’가 되지 못하면 <육>으로 끝나고, <영>은 미래 없이 영원히 ‘사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여 씨가 된 자>는 <자기 욕의 인생>을 ‘씨’로 삼아 희생하여 뿌리니, <육신의 영광>은 별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를 거두어 <영의 부활과 휴거>를 이루고, 황금 세상인 <천국 황금성>을 차지하여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 다 같이 오늘의 주제를 외쳐 보고 마칠까요?

<자막>

<씨>로 ‘황금별판’을 만드시다!

(아멘!)